

## A Challenge about Division 분열에 대한 도전 (고전 1:10-31)

When the church looks more like the world...

I grew up in a small country town in northern NSW. Like a lot of such towns, there were multiple churches of different denominations. But there was one story I remember my father telling about one particular church that experienced division....there had been fighting to the point that eventually one half separated from the other...

As a young boy, I remember thinking, 'well that's understandable when you think about that denomination.' But as I've gotten older & faced threats to godly unity from inside & outside....I've come to realise that sadly, division is a challenge to all churches....

While we at CPC are incredibly blessed with a God-glorifying unity across our gatherings...we dare not take it for granted. The moment we do...is the moment we can grow complacent, & let worldliness take root. It can happen so easily — hypothetically....Say I get upset about something someone has said or done — instead of praying about it & talking to the person.....I grumble & complain to others....

If those others respond by agreeing — being sympathetic in a way that confirms me in my grumbling.... they become united with *me* .... Centred on my complaint & the common enemy who has become the person that has grieved me. Instead of being unified in Christ, I become a sub-group with two or more in the church who have become united in my grievance...

교회가 마치 세상과 같아 보일 때.

저는 NSW 주 북부에 있는 작은 시골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시골 동네와 마찬가지로, 여러 교단의 교회들이 동네 안에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루는 교회 안에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는 교회 이야기를 아버지가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교회 안에서의 싸움은 점점 더 격해져서, 교인 반이 갈라져 나가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 생각에, 저런 문제는 그 특정한 교단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이를 먹을수록, 안과 밖에서 교회의 연합을 방해하는 여러 방해물을 보게 되고...교회 안의 분쟁은 한 교단의 문제만이 아닌, 모든 교회의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캔터베리 장로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분쟁 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합 가운데 있음은 참된 축복입니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연합을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당연히 여기고, 이에 안일하다 한다면, 세속적인 생각이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쉽게 일어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가 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칩시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도해 보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에게 가져가기보다는, 이에 대해 저는 투덜거리고, 다른 이들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이를 듣고 있던 다른 사람이 이에 동의한다면, 저는 이 사람과 같은 불평 아래 한 팀을 이루게 되고,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은 우리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같은 불평을 기반으로 한 여러 편이 교회 안에서 나뉘게 됩니다...

How can it be that such division starts & festers?...when we stop living with Christ + His cross at the centre our lives. Instead of being cross-centred....I've become 'me-centred' ... or 'centred on someone else for some kind of worldly gain' — It can happen to any of us..... God's purpose in this passage is to: challenge us about division to reset our hearts on Christ & His cross....

Let me be clear — Paul’s challenge is about ‘ungodly division.’

Of course there is godly division....we must gently, firmly & courageously be divided from those who would lead us into ungodliness — those who preach a false gospel — those whose agenda is opposed to Scripture...or who are wolves in sheep’s clothing....

but that’s not the kind of division that Paul is speaking about here. For the Corinthians, they’d moved from the time of their joyful conversion to Christ...centred on Him — to the old way of worldly pride that was enslaved to the status associated with their leaders.

### The Problem (10-12)

V10, ‘I appeal to you, brothers, by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all of you agree, and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but that you be united in the same mind and the same judgement. For it has been reported to me by Chloe’s people that there is quarrelling among you, my brothers. What I mean is that each one of you says, “I follow Paul,” or “I follow Apollos,” or “I follow Cephas,” or “I follow Christ.”’

After Paul’s opening encouragement that gave thanks for the grace given to them in Christ Jesus + to remind them of His grace....he begins with a gentle encouragement by the name of the Lord that they agree. The word Paul uses for ‘agree’ was also used on a grave inscription to describe the harmonious ‘agreeable’ life of a man & his wife.

어떻게 이런 분열이 시작되고 깊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멈추게 될 때 그리웁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기보다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혹은 세속적 이득을 위해 다른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분열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구절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은, 분열에 대한 도전과 함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재정비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할 것은, 사도 바울은 경건하지 않은 분열에 대해 지적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경건한 분열도 필요합니다...우리는 용기 가운데, 확고히 그리고 완만하게, 우리를 불경건 한 삶으로 인도하려 하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합니다...예로, 거짓된 복음을 설교하는 자들과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혹은 양의 탈을 쓴 늑대로부터 분리돼 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의 분열은, 이런 경건한 목적을 기반으로 한 분열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회심의 감격과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자신들이 따르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열되어, 세상적 자랑과 세상 지위의 노예가 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 **문제점**

10~12 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은혜와 그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사도 바울의 격려 말씀을 우리가 전 구절에서 보았고...오늘 구절에서는 주 안에서 부드러운 격려로 또한 시작합니다. (여기서 “같은 말을 하고”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서는 “동의”라는 단어로 번역되었는데...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동의하다”라는 단어는, 무덤 묘비에, 남편과 아내가 조화 가운데 일치하는 삶을 표현하기도 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He follows it up by further explanation of this harmony.... negatively: ‘that there be no divisions among you’ & positively — ‘that you be united in the same mind & judgement’

Here’s the reason for Paul’s appeal, v11 ‘(For) it has been reported to me by Chloe’s people that there is quarrelling among you, my brothers. What I mean is that each one of you says, “I follow Paul,” or “I follow Apollos,” or “I follow Cephas,” or “I follow Christ.”

Chloe was obviously known to the Corinthians. Chloe’s people were those from her household who’d likely visited Paul in Ephesus — from where he was writing.

Their report was alarming....strife...conflict...quarrelling among them to show rivalry b/w groups not because of the substance of any of the leaders — Paul, Apollos, Cephas or even Christ — but because of the one-upmanship they thought they might gain by dividing along party lines.

The problem was that instead of honouring the substance of all the four leaders who each pointed to Christ....they were using their names as markers of status & superiority. So Paul sets about correcting the problem by showing them + us the logic of godly unity...the opposite of which is ungodly division...

### Correcting the Problem: The Logic of Godly Unity (13-31)

- Godly Unity Displays Christ (13-16)

V13, ‘Is Christ divided? Was Paul crucified for you? Or were you baptised in the name of Paul?’

여기서 바울은 이 조화로운 삶에 대해 더 설명해 나아갑니다...부정적 의미에서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는” 것이며, 긍정적 의미에서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의 간청 이유가 11 절에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글로에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고. 글로에의 가정에서 온 사람들로, 에베소에서 이 서신을 쓰던 바울을 방문하러 갔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보고는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이들의 다툼과 분열의 이유는, 이들이 따르는 지도자인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의 실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런 분열을 통해, 내가 속한 편이 다른 편보다 더 낫다는 사실을 나타내게 위함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이 네 교회 지도자들의 실체를 영화롭게 하기보다는, 이 지도자들의 이름을 그들의 신분과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해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한 연합의 논리에 관해 설명함으로, 이들의 문제를 고쳐 나갑니다.

### 문제를 고쳐나감: 경건한 연합의 논리 (13-31)

- 경건한 연합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13~16 절)

13 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In their lack of unity....they were communicating to the world that the Lord was divided  
In their party spirit....they were inferring that their leader was their saviour

It seemed that the particular person who had baptised them had also become a mark of their status....so Paul was at pains to say the amount of baptisms he conducted was small + not particularly memorable.

Paul's priority was to show Christ — that's what godly unity always does.  
Ungodly division brings the name of our Lord into disrepute.

I encourage you to develop the habit of taking any disunity towards another brother or sister in Christ to the same logical conclusion. If you're at odds with someone even now, ask yourself, 'am I displaying Christ by my distance from them, my disagreeable spirit with them...my division against them?' Ask the Lord to help you be united with those you may prefer to be against....for the sake of showing the power + beauty of Christ...that God displays in His church. Godly unity displays Christ....& it also exalts the Cross...

### Godly Unity Exalts the Cross (17-25)

V17, 'For Christ did not send me to baptise but to preach the gospel, and not with words of eloquent wisdom, lest the cross of Christ be emptied of its power.'

Paul's tells us his priority — not to baptise but to proclaim the good news of Christ. He then tells us about his method that is 'not with words of wisdom'

그들이 연합하지 못함으로...그들은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분열되게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이런 편 가르기 가운데...그들은 그들의 지도자가 구원자임을 암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느냐가, 그들 신분의 표시였던 것 같습니다...그렇기에 바울은 세례를 악용하는 이들 때문에, 그가 세례를 많은 이들에게 베풀지 아니 했고, 누구에게 베풀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었고...이는 경건한 연합이 항상 추구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한 분열은, 주님의 이름에 불명예를 가져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다른 형제 자매를 향한 분열의 마음을,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형성하시기를 격려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물어 보십시오. "이 사람과 거리를 두고, 동의하지 않고, 분열됨으로, 내가 과연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가?" 내가 이 사람과 연합될 수 있도록 주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그의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권능과 아름다움을 우리의 연합을 통해 나타낼 수 있도록...경건한 연합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또한 그 십자가를 높입니다.

### 경건한 연합은 십자가를 높인다. (17-25)

17 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으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우선순위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는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그 방법에 대한 말씀하길,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다 합니다.

Paul means 'worldly wisdom' We get a clearer picture of this when we think about the culture of Ancient Corinth.

It was a city where the form or skill or persuasiveness of professional speakers was prized over the substance of what they said.~ 12 years ago, Peter Hastie interviewed Bruce Winter who was the principal of the Queensland Theological College. Bruce is also an expert on the ancient setting into which the word of God was addressed:

"A cult of personality developed where people became celebrities or megastars because of their grand style of oratory. The movement towards celebrity actually spread like wildfire throughout the region. People paid to go and hear these orators. Everyone looked up to them. What they said wasn't as important as their style. Their rise to prominence was a triumph of style over substance. People felt that they had to look like them, dress like them, walk like them, talk like them, and they became a model of leadership.

That idolatrous culture had thoroughly infected the church..... It has already infected many churches today — even apparently evangelical 'Christ-centred' churches. All it takes is for a particular personality to attract a 'cult following.' The effect Paul says is to empty the cross of Christ of its power. Why? Because the leader substitutes himself for the Lord.....even when the leader speaks about the Lord.

Bruce Winter went on to speak about the 'secularising of Christian leadership' — the minister becomes more like a CEO — lording it over his staff + congregation + the church operates more like a business than a family.

여기서 말의 지혜란, 세상적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그림을 고대 고린도의 문화를 이해할 때 보게 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웅변자의 말의 기술이나 설득력이, 그 말의 내용보다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곳이었습니다. 12년 전에 PTC 총장인 Peter Hastie 가 Queensland 신학교 총장인 Bruce Winter 를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Bruce 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당시 고대 시대의 배경을 아주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 인터뷰 가운데 말하기를...

*“당시 문화에는, 웅장한 웅변 스타일로, 유명인사나 스타가 되는 형식의 사람 숭배가 발전했었다. 이런 유명 인사들을 향한 움직임은 실제로 그 지역 전체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며 이 웅변가 말을 들으러 갔고. 모든 사람은 유명 웅변가를 우러러봤다. 그들이 말하는 말의 내용은 그 말의 스타일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 그 말의 내용의 실체보다는, 말의 스타일이 더 중요히 여겨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웅변가와 같이 보이며, 그들과 같이 옷을 입고, 그들과 같이 걸으며, 그들과 같이 말을 했다, 그들이 리더십의 표본이 된 것이다.”*

이런 우상 숭배적인 문화가 교회를 감염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는 오늘날의 복음주의 교회 또한 감염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말씀하길 이런 그릇된 문화의 영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린다고 말씀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인기 있는 지도자가, 비록 그리스도에 대해 말할지라도, 결국 그들 자신이 그리스도를 대신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Bruce 는 세속화 돼 가는 기독교 리더십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하기를, 현시대의 목사들은 마치 CEO 와 같아졌다 말합니다. 직원과 신도와 교회 위에 군림하며, 이들을 가족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체로 대하는...

It's no wonder that numbers of so-called 'celebrity leaders' of our day have fallen into the temptation that goes with worldly power.... They resort to ways designed primarily to maintain their power base. Instead of humbly serving their staff + the flocks under their care, such cult leaders resort to intimidation, domination & manipulation of those under their authority.

God forbid that the pulpit or the leadership of this church would ever take on such worldliness.....may He guard all of us from seeking it — lest one day we find the cross of Christ demoted for the perverse sake of someone's ego.

V18 'the word of the cross is folly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For it is written,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and the discernment of the discerning I will thwart."

To the perishing — the unbelievers....the cross seems absurd.....but to us who know its salvation — the opposing conviction takes hold — we know Christ crucified as the very power of God...& as Paul says in v24 'the wisdom of God.'

It has always been God's desire to humble the proud + exalt the humble....that's why Paul quoted Isaiah (750 BC).... that's why God chose the cross to be the power of God for salvation...to thwart human arrogance + champion the cross of power.

We dare not try to make the message more attractive for those who stumble over it + reject it as ridiculous by downplaying sin + the penalty paying substitution of Christ for our sin.

이런 인기 있는 목사들은 세속적인 권력과 어울리는 유혹에 빠지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이들은 주로 그들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고안해 냅니다. 그들은 그들이 돌봐야 하는 양떼 무리를 겸손함 가운데 섬기기보다는, 이 그릇된 지도자들은 이 무리를 헐박하고, 지배하고, 조종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교회의 설교 단상이나 교회의 리더십이 이렇게 세속 적을 됨을 금하십니다...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세속적인 것을 쫓음으로부터 지키시기 바랍니다...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의 자아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대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18 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믿지 않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는 이상한 것입니다...그러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사도 바울이 24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언제나 거만한 자들을 낮게 하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이런 이유로 바울이 이사야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750 BC)...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인간의 거만함을 좌절시키고, 능력의 십자가를 높이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넘어지고, 거절할 자들의 입맛에 맞춰,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낮추어 세상 기준에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거나, 죄를 경시하거나,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경시하지 않습니다.

It might make us more 'acceptable' to the world...but what's it worth to exalt ourselves + the non-believing world over the precious cross of our Lord? Godly unity exalts the cross, not the one who supposedly proclaims it.

### Godly Unity Expresses Humility (26-31)

v26, '(For) consider your calling, brothers: not many of you were wise according to worldly standards, not many were powerful,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But God chose what is foolish in the world to shame the wise; God chose what is weak in the world to shame the strong;'

Paul used the word, 'called' back in v2, when he said the Corinthians were 'called to be saints' — set apart — holy. That was God's effectual call — that was the call that they answered in faith in response to Paul's gospel preaching.

Paul challenges them to consider their life's circumstances in relation to that call — lest any of them think their worldly status merited God's call.

Not many of them were clever like the orators....(though there was Apollos — that Luke tells us in Acts 18:24 'was an eloquent man') not many were powerful (though we know that Erastus — the city treasurer was there...at the end of Romans Paul passed on his greetings from Corinth to the church in Rome & in 2 Tim 4 says 'remained in Corinth')

Not many were of noble birth — just before his death in 44 BC, Julius Caesar had colonised Corinth with a large proportion of freed Roman slaves. Many of those in the church would have been descendants of these lower classes.

이는 우리를 세상이 좀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과 믿지 않는 세상을, 주님의 소중한 십자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길 가치가 있을까요? 경건한 연합이란, 십자가를 높이는 것이지, 이를 설교하는 이를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 경건한 연합은 겸손함으로 나타난다 (26-31)

26~27 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라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울은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2 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라는 말과 함께 사용했습니다. 이는 효과적인 부르심이며, 바울이 설교한 복음에 대한 응답으로, 믿음 가운데 담함이, 이들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 삶의 배경을 하나님의 부르심과 연관 지어 숙고해 보라 도전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높은 세상 신분이 구원받게 한다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도행전 18:24 절에서 말씀함과 같이 아볼로와 같은 똑똑한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런 웅변가와 같이 똑똑하거나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자들이 태어날 때 귀족 신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인 44BC 에, 율리아스 시저는 로마의 종 신분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노예를 포함한, 고린도의 많은 부분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은 낮은 계층의 후손들이었을 것입니다.

The cross-section of those in the Corinthian church — predominately lowly — of humble origin & means — magnified God's grace.

I wonder how they took Paul's word.....I can just imagine how I might have taken it....though I don't have to imagine! I remember Paul Tripp said something similar 'Most of us won't be written up in history books. Several decades after you die, the people you leave behind will struggle to remember the events of your life.'

It's humbling to be told the world won't remember us....that the things we did in the years God has given us that we might want to think mark us out as great....will actually fade  
Praise God for lowliness...weakness & insignificance v28, 'God chose what is low and despised in the world, even the things that are not, to bring to nothing the things that are, so that no human being might boast in the presence of God.'  
Our status is not from the world but from God....

V30, 'And because of Him you are in Christ Jesus, who became to us wisdom from God, righteousness and sanctification and redemption, so that as it is written, "Let the one who boasts, boast in the Lord."'

The world isn't our wisdom — Christ is our wisdom  
How can we keep boasting in ourselves or so-called 'significant' others?  
Our godly unity expresses humility to the glory all the more of our Lord & Saviour... because it says that apart from Jesus, we are insignificant....but in Him we right with God....set apart by God....redeemed from our slavery to sin for God

이렇게 낮은 신분으로 구성된 고린도 교회의 단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확대해 나타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바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가 궁금합니다...만약에 저였다면 이에 어떻게 반응했을지 상상이 됩니다...**Paul Tripp**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 대부분에 사람은 역사책이 기록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죽고 몇 년이 지나, 당신이 남겨두고 가는 사람들은, 당신 삶의 역사를 기억하기조차 힘들어 할 것이다"

이 세상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을 것이라 함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수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행할 때,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기억되지 못하고 사라질 것입니다...우리를 이렇게 낮게 하시고...연약하게 하시며, 유명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 합니다. **28~29 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신분은 이 세상으로 부터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로 부터 오는 것입니다.

**30~31 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십니다.  
이런 말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경건한 연합은 겸손함 가운데 우리 구주의 영광을 더욱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는 말씀하기를 우리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으나...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케 되었고...구별되었으며...하나님을 위해 노예 생활로부터 구속되었다고 말씀 합니다.



## A Cruciform Heart & Church Makes for Glorious Unity

On learning that the first Protestants were being called 'Lutherans' hear what Martin Luther had to say about it — that captures the central point of today's passage:

"What is Luther? The teaching is not mine. Nor was I crucified for anyone....How did I, poor stinking bag of maggots that I am, come to the point where people call the children of Christ by my evil name?"

The pride in us might want to say that Luther was such a great man....he was exceptionally worthy. But that would be to forget the cruciform or 'cross-shaped' & Christ-exalting reset the Spirit urges in these verses.

Who am I, but a mere vessel to magnify Christ for His glory as I strive with you for godly unity?

**십자가의 마음 그리고 영광스러운 연합을 위한 교회.**

첫 개신교인들이 루터교 교인들이었던 걸 보게 될 때, 이에 대한 루터의 말씀은,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을 잘 나타냅니다.

"루터가 무엇인가? 그 가르침은 나의 가르침이 아니며, 내가 누군가를 위해 못 박힌 것이 아니다...어찌하여 나의 사악한 이름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인가? 보잘것없고, 냄새 나는 구더기와 같은 내가!

우리 안에 있는 자만심은, 루터는 매우 위대한 사람이며, 높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말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높이려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잊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경건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 힘씀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려 하는 질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